

영아기 자녀를 둔 중국 출신 이주여성의 생성형 AI 활용 육아 경험*

Parenting Experiences of Chinese Immigrant Women with Infants Using Generative AI

1차원고접수: 2026.04.10. 수정원고접수: 2026.06.01. 최종게재결정: 2026.06.21.

유위¹ · 우림² · 최지영³

¹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²안양대학교 융합교육학과, 조교수

³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Wei, Liu¹

Lin, Yu²

Jiyoung, Choi¹

¹Dept. of Education, Hannam University

²Dept. of Convergence Education, Anyang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중국 출신 이주여성의 생성형 AI 활용경험을 탐색하고 그 의미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자녀를 양육 중인 중국 출신 이주여성 8명(20대 ~ 30대)으로, 반구조화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총 118개의 의미단위에서 32개의 코드를 도출하였고, 이를 통합하여 9개의 하위주제와 3개의 최종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생성형 AI는 수유, 수면, 응급 상황 대처 등 일상적 양육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판단과 지식을 제공하는 지원 시스템 역할을 수행하였다. 둘째, AI는 양육 불안을 완화하고 공감적 반응을 제공함으로써 어머니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심리적 지지자로 기능하였다. 셋째, AI는 한국의 보육 및 의료 제도 이해를 돕고 이중언어 교육 전략을 제시하는 등 다문화 육아 환경에서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돕는 지원자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가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보 공백을 보완하는 새로운 디지털 양육 지원 체계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AI 활용 교육 및 부모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주요어 다문화가정, 중국 출신 이주여성, 영아기, 생성형 AI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Chinese immigrant women raising infants in using generative AI and to identify the meanings of those experiences. The participants were eight immigrant women of Chinese origin in their 20s and 30s who were raising childre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ed using Braun and Clarke's (2006) thematic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generated 32 codes from 118 meaning units, which were subsequently integrated into nine subthemes and three overarching themes. First, generative AI served as a support system that provided immediate judgments and practical knowledge regarding everyday parenting issues, including feeding, sleep, and responses to emergency situations. Second, AI functioned as a source of psychological support by reducing parenting anxiety, providing empathetic responses, and promoting mothers' emotional stability. Third, AI acted as a facilitator of sociocultural adaptation in multicultural parenting contexts by helping participants understand Korea's childcare and healthcare systems and by suggesting strategies for bilingual educ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generative AI may function as a new form of digital parenting support that helps address social isolation and information gaps experienced by immigrant women. This study also highlights the need for future policies and educational programs that support parents in the effective and appropriate use of generative AI.

Keywords multicultural families, Chinese immigrant women, infancy, generative AI

* 이 논문은 2025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전문포스터 논문으로 발표함.

Corresponding to 최지영(Jiyoung, Choi)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Dept. of Education, Hannam University) E-mail. choi0122@hnu.kr

Copyright © 2026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교육 및 가정생활 영역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초기 양육 장면에서도 점차 활용되고 있다(Zawacki-Richter, 2023). 그중 ChatGPT는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에 기반한 지능형 대화 시스템으로, 정보 검색, 텍스트 생성 및 문제 해결 측면에서 높은 편의성을 제공한다(OpenAI, 2022). 기존 연구는 주로 초·중등 및 고등교육 맥락에서 ChatGPT의 학습 지원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Kasneci et al., 2023; OECD, 2023), 가정 양육 환경에서의 실제 사용 경험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영아기(0 ~ 36개월)는 아동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어머니들은 높은 양육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lsky, 1984). 초보 어머니가 되는 과정 자체가 신체적 변화와 정서적 불안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양육과 관련된 정보와 경험의 부족은 자연스럽게 부담으로 이어진다. 선행 연구 또한 영아기 어머니들이 양육 정보의 한계, 실제 경험 부족, 사회적 지지의 미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한다(Leahy-Warren, McCarthy, & Corcoran, 2012).

한편, 최근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장·단기 체류외국인은 약 278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같은 시기 결혼이민자는 188,105명으로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25). 이와 같은 인구 구성의 변화는 다문화가정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유위, 최지영, 2025). 국내 법률에서는 ‘이주여성’을 별도의 법적 용어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체류 및 혼인 관계에 따라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책 및 연구 영역에서 이주여성은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취업, 유학, 가족 동반 등 다양

한 배경으로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5). 특히 중국 출신 이주여성은 국내 결혼이민자 집단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 중 하나로,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정 연구에서 중요한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육아는 모든 부모에게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수반하는 과제이며, 이러한 보편적 어려움에 더해, 다문화가정은 언어, 문화 차이, 사회적 편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더욱 복잡한 양육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들은 환경이 낯선 상황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양육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박은민, 김성수, 박순희, 2011).

이주여성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양육 정보 부족, 가족 내 역할 갈등,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의 양육 경험이 경제적·문화적·관계적 제약 속에서 형성되며, 이러한 제약이 부정적 모성 정체성과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신정숙, 2026). 또한, 다문화가족은 영유아 자녀 양육 과정에서 부모 역할 전환과 양육 규범 형성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며, 이주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의사소통 문제 및 유아 기질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프리만, 트로이 크리스찬, 안정신, 2023; 홍윤경, 손현미, 한규민, 2023).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양육효능감 증진, 정서적 지지, 문화적응 지원 및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김성길, 원종숙, 2024; 이진아, 박서진, 2023).

그러나 이러한 교육 및 지원 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들이 실제로 관련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참여하는 데에는 여전히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의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와 서비스 필요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라 하더라도 접근성이 낮을 경우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유승희, 2023). 특

히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사회 적응교육, 가정방문교육, 부모교육 및 자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보다 집중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유승희, 2023). 또한, 이주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문제, 자녀교육 및 양육의 어려움, 여전히 부족한 한국어 실력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서툰 한국어로 인해 공공기관이나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 과정에서도 심리적 부담과 접근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수인, 이연옥, 2023).

이러한 한계는 이주여성의 양육지원 방식이 기존의 기관 중심 프로그램에만 의존하기보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맞추어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환경의 발달은 전통적인 지원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집단일수록 온라인 기반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양육 환경에서 많은 어머니들은 온라인 자원을 활용해 양육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받고자 하지만 기존 검색 플랫폼은 정보가 분산되어 있고 신뢰성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ChatGPT는 자연어 기반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개인화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양육 지원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Harrer, 2023). 특히 Jabali와 Ayyoub(2025)는 AI 기반 육아 지원이 부모의 양육활동, 건강 관리, 교육적 지원 영역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되고 있음을 양적 연구를 통해 제시한 바 있으며, Kanders, Howard와 Anderson(2024)은 생성형 AI가 초기 아동 발달 맥락에서 부모의 자신감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주로 학생 및 교사의 AI 도구 사용 경험에 집중되어 있으며(Lim, Gunasekara, Pallant, Pallant, Pechenkina, 2023), 영아기 어머니와 같이 실제 양육 상황에서 ChatGPT를 활용하는 사용자 집단에 대한 경험적 탐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이 양육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 접근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목적에 근거하여 영아기 자녀

를 둔 중국 출신 이주여성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며 육아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하고자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영아기 자녀를 둔 중국 출신 이주여성의 생성형 AI 활용 육아 경험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8명으로, 모두 영아기(0 ~ 36개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국 출신 이주여성이다. 참여자의 연령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최소 6년(2020년 입국)에서 최대 16년(2010년 입국)까지로 다양하였으며, 평균 정착 연도는 2015년이였다. 가정 유형은 외국인 가정 4명, 다문화가정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외국인 가정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 출신으로 구성된 경우였으며,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사례로, 연구 참여자 모두 한국 내에서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고 있었다. 거주 지역은 서울 3명, 대전 3명, 부산과 인천이 각각 1명씩이었다. 참여자의 학력은 모두 학사 이상 수준으로, 학사 4명, 박사 4명이였다.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일반적인 이주여성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녀 구성은 1명인 가정이 5명, 2명인 가정이 3명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은 생후 3개월에서 3세까지이며, 모두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였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녀를 직접 돌보며, 일부는 배우자 또는 가족의 도움을 간헐적으로 받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주로 ChatGPT와 중국의 생성형AI 서비스인 Doubao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 기준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이주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N = 8)

참여자	출신국가	가정유형	연령	정착연도	지역	학력	한국어능력	자녀수 (나이)
1	중국	외국인가정	30대	2015	부산	박사	5급	1명 (28개월)
2	중국	외국인가정	30대	2018	인천	박사	5급	1명 (22개월)
3	중국	다문화가정	30대	2013	대전	학사	6급	1명 (26개월)
4	중국	외국인가정	30대	2017	대전	박사	6급	2명 (25개월/2개월)
5	중국	외국인가정	30대	2014	서울	박사	5급	1명 (33개월)
6	중국	다문화가정	20대	2016	대전	박사	4급	2명 (23개월/2개월)
7	중국	다문화가정	30대	2010	서울	학사	5급	2명 (10살/12개월)
8	중국	다문화가정	20대	2020	서울	학사	4급	1명 (3개월)

여성으로, 영아기(0 ~ 36개월)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생성형 AI를 육아 과정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인구 사회학적 배경은 표 1에 제시하였다.

2.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중국 출신 이주여성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구조화 인터뷰의 음성 자료를 모두 문자로 전사하였다. 인터뷰의 주요 면담 질문으로 ‘생성형 AI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어떤 정보나 도움을 구하는지’, ‘AI 사용 후 정서적·실천적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중심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는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비대면 화상 통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참여자와의 면담 시간은 약 60 ~ 90분이었다.

연구 참여 전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자료 수집 방법, 비밀 보장, 자발적 참여 및 중도 철회 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참여자 신원 보호를 위해 모든 개인정보는 가명 처리하였다.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뷰는 참여자의 모국어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 중 두 명이 중국 출신으로 중국어와 한국어로 모두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참여자의 언어적 편의성과 진술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모든 면담을 참여자의 모국어인 중국어로 진행하였다. 다만 참여자 3은 조선족으로 한국어 사용이 가능하며 한국어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어로 수집된 자료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참여자와의 면담이 종료되는 대로 녹음 파일을 반복적으로 청취하며 발화 내용을 가능한 한 축약 없이 옮겼고, 맥락 파악에 필요한 중간 반응이나 감탄사, 망설임 등의 표현도 의미가 있는 경우 전사에 포함하였다. 이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구체적 장소 등은 가명과 일반적 표현으로 대체하였다.

3. 자료분석

전사본이 완성된 후, 연구자는 자료 전체를 여러 차례 정독하면서 초기 인상과 해석 가능성을 연구 노트에 메모하고, Braun과 Clarke(2006)가 제시한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절차를 참고하여 본격적인 코딩 작업을 수행하였다. 도출된 각 주제의 속성과 주제들 간 관계가 전체 자료를 타당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검토와 수정 과정을 반복하였다. 먼저 개방 코딩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의 언어에 가깝게 ‘AI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AI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도움, 불안 완화, 자신감 등)’와 관련된 의미 단위를 문장·단락 단위로 분절하고, 각각에 간단한 코드명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118개의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의미적으로 유사한 의미 단위들을 통합하여 보다 상위 개념인 코드를 구성하였다. 이유식 재료의 조합 가능 여부를 질문하거나 음식의 양을 확인하는 발화들은 “이유식 관련 정보 탐색”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가지므로 하나의 코

드로 통합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총 32개의 코드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생성된 코드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코드들이나 의미적으로 유사한 코드들을 묶어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아플 때 먼저 AI에게 묻는다’, ‘이유식 구성·방법을 AI로 확인한다’, ‘병원에 가야 하는지 AI에게 판단을 묻는다’와 같은 코드는 “즉각적인 육아 판단과 지식 지원”이라는 보다 상위 수준의 의미 범주로 묶였고, ‘AI가 나를 위로해 준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힘이 난다’와 같은 코드는 “정서적 안정을 돕는 심

리적 지지”라는 주제로 묶였다. 또한 ‘한국 엄마에게 직접 묻기 어렵다’, ‘유치원 시스템을 AI로 먼저 알아본다’, ‘중국어·한국어를 어떻게 함께 사용할지 AI에게 묻는다’와 같은 코드는 “다문화 육아 환경에서의 지식 보완”이라는 주제로 정리되었다. 후속 단계에서는 이렇게 도출된 주제들이 자료 전체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서로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은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전사본과 코딩표를 여러 차례 왕복하며, 각 주제 아래에 배치된 코드와 관련 진술들이 논리적으로 응집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구문제에 적절히

표 2. 중국 출신 이주여성의 생성형 AI 사용 경험

최종주제	하위주제	코드 (Code)
AI는 즉각적인 육아 판단 및 지식 지원 시스템	수유 방식 및 이유식 준비에 대한 구체적 안내	이유식 조합 확인
		이유식 영양 정보
		음식 적합성 판단
	수면 리듬 및 수면문제에 대한 조언	수면 패턴 확인
		야간 수유 조절
		수면 문제 상담
		수면 습관 이해
	급한 상황에서의 대처 단계	낙상 사고 대응
		발열 대처 방법
		발달 행동 판단
		발달 단계 이해
		행동 문제 해결
AI는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심리적 지지자	양육 불안과 걱정의 완화	즉각적 정보 탐색
		AI 우선 상담
		양육 불안 완화
		불안 감소 경험
	정서적 위로와 공감적 반응의 제공	스트레스 상담
		감정 표현
		정서적 위로
	양육 자기효능감의 향상	정서 안정
		자기효능감 증가
		의사결정 보조
AI는 다문화 육아 환경에서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돕는 지원자	한국 사회 및 제도(어린이집·의료체계)에 대한 설명 및 교육 개념 이해를 돕는 기능	판단 확신 강화
		양육 방식 확인
		정보 접근 문제
	이중언어 노출 및 언어 입력 전략에 대한 안내	부모 네트워크 부족
		정보 접근 보완
		사회 정보 부족
	문화 및 언어 차이로 인한 문제 해결	이중언어 고민
		언어 사용 전략
		문화 차이 인식
		양육방식 차이 비교

답하고 있는지 반복적으로 점검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미가 모호하거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주제는 세분화하거나 통합하였고, 내용이 빈약한 주제는 다른 주제에 흡수하거나 삭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남은 주제들의 핵심 의미를 정리하고 주제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명 및 정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주제 명명 및 서술 단계). 이러한 과정에서 자료분석의 타당화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비대면 온라인 회의를 통해 주제 도출과 정교화 작업을 반복하여 논의하고 검토하였다. 코딩표는 표 2에 제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8명의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연구문제에 대응하여 연구결과를 세 가지 최종주제로 구성하였다. 이는 영아기 자녀를 둔 이주여성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육아를 어떻게 경험하고 그 경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분석 결과 도출된 세 가지 최종주제는 다음과 같다.

1. AI는 즉각적인 육아 판단 및 지식 지원 시스템

1) 수유 방식 및 이유식 준비에 대한 구체적 안내

참여자들은 수유 방식 선택, 이유식 개시 시기와 단계, 재료의 조합 등과 관련하여 생성형 AI를 ‘육아 설명서’처럼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육아 정보가 혼재되어 혼란을 느낄 때, 기존에는 책과 인터넷 카페를 찾았던 정보를 이제는 AI에게 직접 묻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아기에게 어떤 이유식을 추가해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지, 또 아기가 열이 나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을 자주 한다.” (참여자1)

“所以有什么样的事情啊，比如说宝宝在加入什么样的辅食，怎么做给他，还有他宝宝什么呀，发

烧啦、感冒啦怎么做问的比较多。” (참여자1)

“예를 들어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유식을 만들 때 예를 들어 6개월이 되었을 때 무엇을 추가해야 하는지와 같은 메뉴에 대해 질문한다.” (참여자1)

“就比如说这种生病的时候，一些问题，还有就是做辅食的时候，比如说6个月的时候该加啥，就是这种菜单。” (참여자1)

“어제 내가 무엇을 검색했는지 보니까, 바로 ‘야간 수유’에 관한 것이었다. 대략 언제부터 세 시간마다 수유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검색했다.” (참여자6)

“昨天的话，我看看我查的啥啊，就还是这个。我查的是这个夜奶，就是大概什么时候，什么时候的话就不需要3个小时一喂了，我查的是这个。” (참여자6)

“아이 어렸을 때도 물어본 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모유 수유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참여자6)

“小的时候也有问过呀，比如刚开始是母乳好呀。” (참여자6)

2) 수면 리듬 및 수면문제에 대한 조언

수면 역시 참여자들이 자주 AI를 찾는 영역이었다. 야간 수유를 언제 줄여야 하는지, 낮잠을 얼마나 재워야 하는지, 이른바 ‘수면 퇴행’으로 보이는 행동이 정상 발달 과정인지 등에 대해 어머니들은 즉각적인 판단 기준을 필요로 했고, 이를 AI를 통해 보완하고 있었다.

“수면 문제에 대해서도 자주 질문을 했다. 예전에는 아이가 잠을 잘 때 계속 몸을 움직이고 뒤척였다. 그래서 AI에게 물어봤더니 아이의 등을 마사지해 주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가 잠들기 전에 등을 위에서

아래로 마사지해 주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예전보다 잠을 더 잘 자는 편이다.” (참여자1)

“睡眠的问题也经常提问。之前的话就会小孩子睡觉就会他会一直动，一直动。我就问了AI，给我的意见是让我按摩背会有帮助。我现在就是晚上我家宝宝，他睡觉之前的话，他特别喜欢就是他背部就是类似咱们说把那个背部的皮给他按摩，就是从上往下，觉得反而多少还是有效果吧，而且他睡觉的时候比之前睡得好。” (참여자1)

“아이의 식사 문제나 수면 문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AI에게 질문하기도 한다.” (참여자2)

“因为孩子吃饭的问题，睡觉的问题。会问一问。” (참여자2)

3) 급한 상황에서의 대처 단계

낙상, 타박, 위험 등 긴급 상황이 우려될 때도 참여자들은 우선적으로 AI에게 대응 절차를 묻는 경향을 보였다. 아직 심각한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AI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알려 주는 존재로 사용되었다. 참여자3은 아이가 넘어졌을 때 관찰해야 할 증상을 AI에게 묻고, 그 안내에 따라 몇 시간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시 병원을 방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며칠 전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가 있었다. 이런 경우 AI에게 물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열이 날 때 몇 시간 동안 계속 열이 나면 병원에 가야 하는지, 또는 어떤 처치 방법이 있는지 등을 물어본다. 또 약을 먹이면 아이가 토하기도 하는데, 계속 토해서 결국 병원에 가서 이틀 동안 수액을 맞았다. 그리고 아이의 손바닥이나 팔에 있는 경혈을 마사지해 주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 보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참여자1)

“比如说前几天我家宝宝生病的话，会发烧。然后你就可以问AI，那这种发烧的话，比如连续发几个小时，用不用去医院或者有什么样的处理措施有推荐。然后喂药也吐，反正都给你吐。然后没有办法，就是去医院，然后输了两天的液，然后按摩，手上有一个穴位。也是可以的，手心或者胳膊上，然后按摩了之后，好像也是有效果的……” (참여자1)

“예를 들어 아이가 다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갑자기 의자에서 떨어졌다면 이것이 심각한지,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떤 경우가 위험한 상황인지 등을 AI에게 물어보게 된다. 당시 식사용 의자가 꽤 높았고 아이가 계속 울고 있어서 병원에 가야 할지, 혹시 뇌진탕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검색을 해 보았는데 구토가 없고 오래 잠들지 않으며, 아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비틀거리지 않고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면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참여자5)

“比如孩子受伤的时候，或者他突然从椅子上摔下来，我就会想知道这种情况严不严重，需不需要去医院，什么样的情况才算是比较危险。当时孩子是从餐椅上摔下来的，餐椅还挺高的，他一直在哭，所以我也太确定到底要不要带他去医院，会不会有脑震荡之类的问题。后来我就查了一下，AI告诉我，如果没有呕吐、没有长时间嗜睡，孩子摔倒后还能站起来活动，走路没有摇晃，精神状态也正常的话，一般来说问题不大。” (참여자5)

“가끔은 꽤 도움이 되기도 한다. 중간에 여러 번 다시 검색해 보기도 하고,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 주면 열이 내려가기도 했다. 그리고 질문을 해 보면 명확한 답이 없을 때도 있지만, 열이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면 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해 주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바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간다.” (참여자8)

“有的时候挺有用的。真的啊，中间还会反复搜，然

后就给他用温水, 然后给他一直擦, 然后他就会降温。然后就问了, 问了之后, 其实他们就也会建议你反复发烧的话, 就要去医院比较好一点。所以那种情况的话, 我一般就直接就去带他去医院……” (참여자8)

2. AI는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심리적 지지자

1) 양육 불안과 걱정의 완화

참여자들은 영유아 양육과정에서 지속적인 불안과 걱정을 경험한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첫째 아이를 처음 키울 때, 또는 한국의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다. 이때 생성형 AI는 단순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과정에 개입하는 도구로 기능하였다.

“예를 들어 아이가 물건을 마구 던지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화를 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크게 울기도 한다. 또 음식을 먹기 싫어하면 바닥에 던지기도 한다. 이런 행동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몰라서 AI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게 된다. 그러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부모의 생각을 교정해 주는 조언을 해 준다.” (참여자2)

“就如他乱扔东西, 然后打人发脾气, 然后要不到的时候会大哭等等, 有一些不合理的行为嘛, 我们看比如说他吃东西呢不愿意吃, 他就扔在地上。我就很生气也不知道该怎么教育他。就会给AI说, 问问怎么办。然后针对性的告诉我一些方法, 然后或者说一些。纠正我们的一些想法嘛, 就是这样子。” (참여자2)

“한 번은 아이에게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AI에게 물어보았다. 아이가 그렇게 울고 떼를 쓸 때 내가 소리를 지른 것이 맞는 행동인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AI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좋지 않으며 화를 내지 말고 아이에게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화가 났을 때는 먼저 내 감정을 안정시킨

다음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해 주었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참여자4)

“有一次我实在控制不住情绪, 就对孩子吼了。吼完以后, 我就去问AI。我问它, 孩子这样哭闹的时候, 我对他吼了, 这样做对不对。AI就告诉我, 吼孩子是不好的, 应该尽量不要发脾气, 而是好好地跟他说。如果自己很生气, 可以先让自己的情绪稳定一会儿, 然后再去和孩子沟通。它会给我这样一种引导。” (참여자4)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내가 자주 사용하지 않더라도 AI가 나의 상황이나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내가 불안하거나 걱정이 될 때 계속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어서 ‘이 방법이 괜찮겠다’고 느끼게 되고 실제로 적용해 보기도 한다.” (참여자6)

“还有一个比较好的地方是, 因为我平时经常用AI, 它也会比较了解我的一些信息。比如我有点焦虑的时候, 就会一直问它。我觉得它给我的一些信息, 有时候是我自己想不到的, 而且我会觉得这个方法好像挺好的, 所以就会去试着用。” (참여자6)

“생활 속에서 마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는 비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더 안심된다. 특히 아주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비교적 빠르게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된다.” (참여자7)

“但是会感觉到就是生活中有一个比较及时的秘书一样, 比较安心吧, 就是很细节的问题, 他能够比较及时的回复。” (참여자7)

2) 정서적 위로와 공감적 반응의 제공

참여자들은 AI가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위로해 주는 존재’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고 반복적으

로 언급하였다. 특히 “이미 잘하고 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와 같은 문구는, 정서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4는 불안할 때마다 먼저 AI에게 물어보고 AI가 자신을 위로해 주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경험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AI가 정서적으로 공감을 표현하고, 어머니의 감정을 정당화해 주는 반응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hatGPT가 감정적인 부분도 잘 알아준다고 들었다. 내가 많이 힘들 때 내 감정을 잘 어루만져 주는 느낌이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ChatGPT와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밤새도록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준다고 느꼈다고 한다.” (참여자3)

“스트레스는 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AI에게 질문을 하게 된다.” (참여자4)

“压力有啊, 因为我一有压力, 我就开始问他。” (참여자4)

“육아를 하다 보면 화가 나거나 육아로 인해 매우 힘들고 지칠 때가 있다. 그럴 때 AI와 이야기를 나누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는 느낌이 든다. 물론 AI의 위로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자5)

“我感觉就是我育儿的时候, 比如说我很生气的时候我很什么育儿崩溃的时候商谈他疏导我这方面我感觉帮助更大。然后就跟他聊, 他就安慰我啊, 当然我觉得他的安慰也是有限。” (참여자5)

“AI는 종종 나를 신앙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도를 해 보라고 제안하거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해 주기도 하는데, 그런 점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 (참여자7)

“他最后都会用一个, 他就会给我引导到那个信仰的那一方面, 就让我觉得很好。就比如说他经常就

说我们不妨我们可以试一下下面的祷告, 他会安慰我。” (참여자7)

3) 양육 자기효능감의 향상

생성형 AI는 어머니의 기존 지식을 검증하고 보강하는 역할을 하며, 그 결과 양육 자기효능감을 높여 주는 양상을 보여준다.

“나는 AI를 통해 양육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AI가 제시하는 방법 중 약 60 ~ 70% 정도는 내가 생각한 방법과 비슷하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고, 내 생각을 더 확신하게 만들어 주며 감정을 보다 안정되게 해 주는 것 같다.” (참여자2)

“因为我我说的是我要通过 AI去找一些方法, 然后找到的一些方法, 有的时候是60%到70左右是和我的一样。所以对于我来说, 是可以的, 是这样的一种让我是更加坚定和让我更加的怎么说。对于我来说是使我的情绪能够更加的稳定吧。” (참여자2)

“기본적으로는 아이의 성향과 특성을 먼저 고려한다. 그런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ChatGPT의 도움을 받는다. 어떤 상황에서 ‘이게 맞는 선택인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ChatGPT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면서 나의 생각이나 선택을 조금 더 확신하게 되는 것 같다.” (참여자3)

“예를 들어 이미 큰 방향의 양육 방식은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 AI에게 질문한다. 그러면 그 세부적인 부분을 보완해 주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참여자5)

“所以就是有些, 比如说我已经大方向已经确立了, 但是就这个方向里面的细节, 我要是不确定的话, 我可能会问他, 他可能就会里面的细节给我补充完整。” (참여자5)

“그리고 AI의 조언을 통해 내가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좋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참여자8)

“对，然后会让我更加有确信的，然后告诉别人，你这个方法或者说你在养育孩子过程当中应该怎么样去做，然后有这样子。” (참여자8)

3. AI는 다문화 육아 환경에서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돕는 지원자

1) 한국 사회 및 제도(어린이집 · 의료체계)에 대한 설명 및 교육 개념 이해를 돕는 기능

참여자들은 한국의 어린이집 · 유치원 시스템, 예방접종 일정, 의료 체계 등 제도적 ·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도 AI를 활용하고 있었다. 참여자8은 “유치원에서 보내오는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AI에게 문장을 붙여넣고 ‘이게 무슨 뜻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묻는다”고 설명하였다.

“예방접종 일정이나 병원 예약 방법 같은 것도 한국이랑 중국이 달라서 헷갈렸어요. 그래서 AI에게 하나씩 물어보면서 한국 시스템을 이해하게 됐어요.” (참여자4)

“像疫苗接种安排、医院预约这些，在韩国和中国都不一样，我很容易混淆。所以我会一点点问AI，慢慢理解韩国的制度。” (참여자4)

“한국에서는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해도 되는지, 혹시 실례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AI에게 ‘이런 질문을 해도 괜찮은지’를 물어보면서 한국의 문화적인 기준을 이해하게 됐어요.” (참여자6)

“在韩国，我会担心哪些问题可以问老师，哪些可能会显得不礼貌。所以我会问AI‘这种问题能不能问’，慢慢理解了韩国的文化规范。” (참여자6)

2) 이중언어 노출 및 언어 입력 전략에 대한 안내

중국인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어느 정도 비율로 중국어와 한국어를 노출해야 하는지, 집에서는 어떤 언어를 중심으로 사용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때 생성형 AI는 이중언어 발달 원리와 구체적 실천 전략을 설명해 주는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가끔은 아이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면 유치원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AI에게 물어본 적도 있다.” (참여자2)

“有时候也怕孩子不会说韩语，影响他去幼儿园沟通，问了我们该怎么做。” (참여자2)

“최근 아이가 나와 중국어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나와 중국어로 이야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AI에게 물어보았다.” (참여자7)

“最近孩子不愿意和我说中文，我就问问AI该怎么引导孩子和我说中文。” (참여자7)

“사실은 아이가 중국어를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많이 찾아보고 AI에게도 물어보았는데, AI가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알려 주어서 꽤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참여자 8)

“其实还是希望孩子能说中文，但是我也不知道该怎么让她学习，在网上也是找了很多，也问了AI，AI给我说了什么阶段该怎么做我觉得挺不错。” (참여자8)

3) 문화 및 언어 차이로 인한 문제 해결

일부 참여자들에게 생성형 AI는 한국인 남편과의 양육 방식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중재하는 도구로 기능하였다. 참여자5의 경우, 남편이 아이의 수면 습관 형성에 대해 “지금은 그냥 안아서 재우면 된다”고 주장할 때, 참여자5는 AI에게 수면 교육 관련 정보를 묻고, 그

내용을 한국어로 정리해 남편과 공유하였다. 그 결과 남편은 “이 방식이 단순히 중국식 양육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게 되었고, 부부가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면서 수면 관련 갈등이 줄어드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한국과 중국의 양육 방식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자신과 한국의 양육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에게 적합한 양육방식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이 문제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AI에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AI는 다양한 양육 방법과 감정 관리에 대한 방법 등을 제시해 주었다.” (참여자2)

“所以我就因为这个彼此意见不和, 然后我就去问了, 然后对他会给我列举一些养育的一些方式, 还有一些情绪的管理等等。” (참여자2)

“ChatGPT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 같다.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질문만 하면 일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4)

“我觉得ChatGPT在某种程度上可以替代这部分。因为不需要在人际关系中消耗精力, 只要提出问题, 就可以获得一些普遍性的信息。” (참여자4)

“이유식을 시작할 때 한국은 좀 더 늦게 시작하는 느낌이고, 중국은 조금 더 다양하게 먹이는 것 같아서, 어떤 기준이 맞는지 AI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참여자7)

“在开始添加辅食的时候, 我感觉韩国是相对开始得更晚一些, 而中国则更倾向于让孩子尝试更多种类的食物。所以我一直在问AI, 到底哪种标准更合适。” (참여자7)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이주여성 8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육아 경험을 질적 주제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와 이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로 인해 친정 가족이나 지인 등 전통적인 육아 조언 집단과 물리적으로 단절된 상황에서, 생성형 AI가 이주여성들에게 디지털 기반의 육아 지식 지원 체계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수유 방식, 이유식 준비, 수면 리듬 조절, 영유아 건강 상태 판단, 긴급 상황 대처 등 일상적인 육아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생성형 AI가 단순한 정보 검색 도구를 넘어,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육아 지식을 탐색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생성형 AI 기반 육아 지원이 부모의 양육활동, 건강 관리, 교육적 지원 등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제시한 Jabali와 Ayyoub의 연구(2025)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가족과 친족 중심의 육아 지원 체계에 접근하기 어려운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로, 생성형 AI는 이들에게 이러한 정보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생성형 AI가 부모의 양육과정에서 양육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육아 정보 매개체라는 점을 보여준다. 기존에는 육아 관련 정보가 주로 가족 구성원, 육아 서적,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획득되었지만,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이주여성들은 대화형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즉각적이고 개인화된 방식으로 육아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생성형 AI는 부모가 직면한 상황에 맞춤형 정보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부모의 정보 획득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지적인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강누리, 강지영, 2022; 노인순, 김승희, 2020).

그러나 생성형 AI가 부모에게 다양한 육아 전략과

정보를 제시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아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짐)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었다. 생성형 AI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보조적 도구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실제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며 행동을 결정하는 주체는 여전히 부모 자신이었다. 즉,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인지적 판단과 문제해결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Kanders et al., 2024). 한편, 연구의 참여자들이 양육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이 적절한지를 생성형 AI에게 질문하고 그 반응을 통해 확신을 얻는 점을 볼 때, AI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머니가 부모로서의 정체성과 역할 인식을 점검하는 성찰의 매개체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주여성은 한국이라는 낯선 양육 환경에서 자신의 원가족 문화에서 학습한 양육 규범과 한국 사회의 규범 사이에서 역할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는데(조미영, 배지희, 2011), 생성형 AI는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양육 방식과 역할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양육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이 적절한지에 대해 생성형 AI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통해 자신의 양육방식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생성형 AI가 양육과정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자신의 양육방식과 역할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생성형 AI 활용이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 활용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나 자녀 발달에 대한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장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성형 AI는 양육 불안과 걱정을 완화하고, 어머니의 양육 자기효능감을 높이며, 정서적 위로와 공감적 반응을 제공하는 심리적 지지자로 작동하였다. 특히 “이미 잘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와 같은 반응은 참여자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울림을 주었으며, 자신의 방식이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부여하였다. 이는 생성형 AI가 부모의 자신감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Kanders 등의 연구(2024)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생성형 AI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양육과정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지지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자녀 양육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지가 필요하며, 전통적으로 이러한 지지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생성형 AI가 정서적 위로와 공감적 반응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인간 중심지지 체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지원이 되었음을 보여준다(김영은, 이소연, 2024).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 개념이 전통적인 인간관계 망을 넘어 디지털 환경까지 확장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문화 여성의 경우 출산 이후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 사회적 고립,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외로움과 심리적 부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김태희, 차용진, 2026). 이러한 상황에서 생성형 AI는 일시적인 정서적 위로나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모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친구, 지역사회 등 실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형성되는 지속적인 지지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나 관련 기관에서는 ‘건강하고 비판적인 AI 활용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즉, 구체적으로는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를 인지시키고,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모 교육은 ‘AI란 무엇인가’, ‘AI를 왜 활용해야 하는가’와 같은 개념 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어머니가 실제 양육 장면에서 생성형 AI를 직접 다루어 보는 실습 중심의 ‘AI 준비도 향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셋째, 생성형 AI는 이중언어 노출 전략, 한국의 유아 교육, 의료 제도, 한국어 전문 용어와 교육 개념 이해,

한국인 남편과의 양육관 차이 조율 등에서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을 완충하는 지식의 다리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생성형 AI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낮은 육아 환경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언어 능력의 제한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의 의료 제도와 양육 규범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조미영, 배지희, 2011). 이러한 맥락에서 생성형 AI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양육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넷째,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의 육아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다문화가정의 양육 스트레스, 언어 및 문화 적응, 사회적 고립 등을 ‘부족’과 ‘취약성’의 관점에서 다루었다(김예지, 이해진, 김한솔, 2025; 최민혜, 이연우, 2025; 한승희, 유금란, 2025). 본 연구는 생성형 AI가 이러한 환경적 제약 속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능동적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단순히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양육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어머니 8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질적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다문화가정이나 다른 문화권의 이주 부모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특히 모든 참여자가 중국 출신 여성이라는 점에서, 아버지, 한국인 배우자, 다른 국적 이주 부모의 경험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권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주 부모를 포함하여 생성형 AI 활용 경험을 보다 폭넓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 중 박사 학위 소지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비교적 높은 교육 배경은 연구 참여자들이 지식 탐색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 디지털 도구 활용 등에 있어 일정한 이점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 배경이 낮은 이주 어머니들이 양육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연구에서 다양한 교육 배경과 디지털 활용 경험을 가진 이주 부모들을 포함하여,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다 폭넓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생성형 AI의 활용이 양육과정에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필요하다. 생성형 AI는 양육자에게 정서적 지지와 정보 제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정보의 정확성과 전문성에 대한 한계도 존재한다. 특히 의료적 판단이나 전문적인 교육 상담과 같은 영역에서는 AI의 정보가 전문가의 판단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생성형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양육자의 독립적인 판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AI 활용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검토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누리, 강지영 (2022).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세어런팅 경험에 관한 연구: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5(2), 35-65. <https://doi.org/10.54540/JSS15.2.2>
- 김성길, 원종숙 (2024).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부모교육 경험에 기반한 부모교육 패러다임 전환 제안.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IJACE)*, 27(1), 101-122. <https://doi.org/10.22955/ace.27.1.202402.101>
- 김영은, 이소연 (202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감각처리민감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27(4), 433-453. <https://doi.org/10.17641/KAPT.27.4.1>
- 김예지, 이해진, 김한솔 (2025).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 방임적 양육태도와 학교부적응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70, 1-27. <https://doi.org/10.20993/jSSW.70.1>
- 김태희, 차용진 (2026). 이주배경 어머니의 양육자원 잠재유형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격차: 우울, 사회적 고립 및 사이버비행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9(1), 5-36. <https://doi.org/10.14431/jms.2026.2.19.1.5>
- 노인순, 김승희 (2020).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

- 활용에 관한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3), 311-335.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23.311>
- 박은민, 김성수, 박순희 (2011). 필리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결혼여성의 자녀 양육 경험. 인간발달연구, 18(4), 147-167.
- 법무부. (202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체류외국인 현황』.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에서 2026년 1월 12일 인출
- 신정숙 (2026). 유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양육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심리발달연구, 7(1), 85-102.
<https://doi.org/10.64363/ykspd.2026.7.1.85>
- 유승희 (2023).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가 사회서비스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층 분석. 보건사회연구, 43(3), 195-209.
<https://doi.org/10.15709/hsr.2023.43.3.195>
- 유위, 최지영 (2025).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중단적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32(3), 59-72.
<https://doi.org/10.15284/kjhd.2025.32.3.59>
- 이진아, 박서진 (2023).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인문사회 21, 14(1), 4065-4080. <https://doi.org/10.22143/HSS21.14.1.286>
- 정수인, 이연옥 (2023).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전략.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3), 5-35.
<https://doi.org/10.14699/kbiblia.2023.34.3.005>
- 조미영, 배지희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영유아기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멘토링 과정 탐색. 유아교육연구, 31(6), 427-454. <https://doi.org/10.18023/kjece.2011.31.6.019>
- 최민혜, 이연우 (2025).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동북아 문화연구, 1(84), 73-89.
<https://doi.org/10.17949/jneac.1.84.202509.004>
- 프리만, 트로이 크리스찬, 안정신 (2023).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문화적응스트레스, 양육효능감과 유아기질의 영향: 중국, 베트남, 일본 여성 비교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7(4), 73-95.
<https://doi.org/10.21321/jfr.27.4.73>
- 한승희, 유금란 (2025). 다문화가정 어머니 문화적응의 중단적 변화-교차지연 패널 네트워크 모형(Cross-lagged Panel Network Model)의 적용-.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21, 229-259. <https://doi.org/10.22957/mses.21..202512.229>
- 행정안전부. (2025).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24. 11. 1. 기준). https://www.mois.go.kr/f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121226에서 2026년 5월 15일 인출
- 홍윤경, 손현미, 한규민 (2023).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가족 역학 탐색. 글로벌 건강과 간호, 13(1), 31-43. <https://doi.org/10.35144/ghn.2023.13.1.31>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https://doi.org/10.2307/1129836>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https://doi.org/10.1191/1478088706qp0630a>
- Harrer, S. (2023). From GPT-3 to ChatGPT: The future of generative AI in education and research.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71, 1261-1265.
<https://doi.org/10.1007/s11423-023-10192-4>
- Jabali, O. A., & Ayyoub, A. (2025). Smart parenting: Effortless routine engagement with AI support: A quantitative study. *AI*, 6(1), 9. <https://doi.org/10.3390/ai6010009>
- Kanders, K., Howard, S. J., & Anderson, P. J. (2024). Perspectives on the impact of generative AI on early-childhood development.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33(4), e2472. <https://doi.org/10.1002/icd.2472>
- Kasneci, E., Sessler, K., Küchemann, S., Bannert, M., Dementieva, D., Fischer, F., Gasser, U., & Kasneci, G. (2023). ChatGPT for good? 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large language models for education.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3, 102274. <https://doi.org/10.1016/j.lindif.2023.102274>
- Leahy-Warren, P., McCarthy, G., & Corcoran, P. (2012). First-time mothers: Social support, maternal parental self-efficacy and postnatal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1(3-4), 388-397.
<https://doi.org/10.1111/j.1365-2702.2011.03701.x>
- Lim, W. M., Gunasekara, A., Pallant, J. I., Pallant, J., & Pechenkina, E. (2023). Generative AI and the future of education: ChatGPT and beyond. *Journal of Applied Learning & Teaching*, 6(1), 1-13.
<https://doi.org/10.37074/jalt.2023.6.1.9>
- OpenAI. (2022, November 30). ChatGPT: Optimizing language models for dialogue. Retrieved November 19 2025, from <https://openai.com/blog/chatgpt>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3).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ECD Publishing.
- Zawacki-Richter, O. (2023).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s of ChatGPT in education. *Distance Education*, 44(3), 325-340.
<https://doi.org/10.1080/01587919.2023.2237446>